



제 11호
2025년 김포종회 소식
www.부안임씨밀직공파.com

扶安林氏金浦宗報



◎ 발행일 : 2026년 2월 7일 ◎ 발행인 : 임종광 010-7600-8082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산재로 42-68

<중보 회장 인사말>

우리는 하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회장 林鍾光 (29世孫)

존경하는 부안임씨 종친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과 번영의 병오년(丙午年)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광활한 수평선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전국의 임씨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대와 세대 세상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姓)씨에 대한 친족의 개념이 우리 세대에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종족을 이루고 있는 근원이 어디이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 왔는지 이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 임씨(林氏)는 한림학사, 이부상서(吏部尙書) 충절공 임팔공(林八及) 선조님이 경기도 평택 팽성에 동도 하셨고, 우리나라 수풀임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부안임씨 득관시조이시며 1세조인 문헌공(文憲公) 휘 계미(季美) 조고님을 부안임씨의 본관(本貫)으로 하여 10세(형) 휘 대광은 밀직공파(密直公派), 10세(아우) 휘 난수는 전서공파(典書公派), 9세(차남) 휘 택은 판사공파(判事公派)로 나뉘어져 오늘날 놀라운 발전과 성공을 이룬 성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안임씨 김포 밀직공파는 1392년 고려를 멸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한림학사 휘 계정 조고님께 벼슬을 내리며 조선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자 불사 이군의 신의로 사양하고 강을 건너 김포 통진에 세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635년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는 산 역사인 은행나무를 비롯 학사공 묘비와 세장지(世葬地) 조상의 손길이 이어져 오고 있는 임씨가묘(林氏家廟)의 재실 그리고 선영, 전통 제례의식 등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정신적인 문화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안임씨가 거쳐온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류의 흐름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합니다.

근심지목(根深之木) 풍역불울(風亦不扞)

원원지수(源遠之水) 한역불갈(旱亦不竭)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한다.

용비어천가의 구절과 같이 우리 성씨는 이러한 긴 역사 속에서 후손들이 번창하고 있으며 임씨가 전국에 24관향으로 분관은 되어 있지만 한 뿌리의 자손인 것이 변함이 없어 자랑스롭습니다.

3,600년 전의 은나라 왕조부터 시작된 우리 임씨는 혈통과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뿌리 깊은 나무이고, 샘이 깊은 우물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아무런 의미와 발전이 없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는 살아 남고 싶다면 과거를 돌아 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는 오랜 기간 종원들이 똘똘 뭉쳐 조상님을 숭조하고 뜻깊게 선양하는 일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종회의 기본 정신은 임종철(林鍾喆) 명예회장님때 부터 이어온 숭조(崇祖), 개선(改善), 화평(和平)의 틀 위에 숭조상문(崇祖尙門)과 가전충효(家傳忠孝), 예의염치(禮儀廉恥)의 3대 종훈을 제정해 전 종원이 실천하고 지켜 가고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일가 간에 친목을 찾고 예와 의리 그리고 염치를 지양해 나가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뿌리를 개선하면서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상님을 섬기고 선양하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고려말 무신정변으로 화를 당해 아픔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종중은 위대한 문학가 7세조이신 서하 임춘(西河 林椿)시인님을 최고의 역사적 인물로 숭조, 숭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전국의 후손들이 참여하는 세일제(歲一祭)를 비롯해 천재시인의 정신과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서하임춘 문학비를 건립했고, 서하임춘 시집을 재 출간하고 서하임춘 문학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인 젊은 대학생들에게 조상님의 은공과 오늘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며 매년 서하임춘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 의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춘 장학금을 받은 젊고 유능한 우리의 후손들을 잘 키우고 조상의 은덕을 심어 주는 일은 우리 세대가 꼭 해야 할 소중한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하임춘 조고님을 기리는 서하임춘 문학상을 제정해 성황리에 성료했습니다. 본 문학상을 통해 위대하신 서하임춘 시인님이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특정 인물로 목적의 글을 각종 자료를 통해 검색하고 분석, 평가하여 새롭게 시, 수필, 단편소설로 훌륭하게 재탄생하게 하므로써 문학제는 큰 반응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 널리 알리는 선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하공에 대한 연구와 서하공을 주제로 쓴 장편소설 수미산으로 오랜 인연을 맺어온 존경하는 고은 시인님께서도 참여하시어 서하임춘 문학제 축하에 즈음해 “임춘 선생의 망각된 시세계가 바람 속의 등불로 꺼져가다가 살아나 그 후손 종문의 발족을 바탕으로 후대 사학의 경이적인 진면목이 발굴되어 이제 당당한 고려사학을 이루게 되었다”며 크게 칭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시도한 문학상의 반응과 성과가 예상외로 많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던 경험을 살려 올해 제2회 서하임춘 문학상은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학인의 참여 폭도 김포, 검단이라는 지역적 제한에서 벗어나 대도시 수도권 문학인과 대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상금의 규모등도 늘려 많은 문학인에게 호응과 참여의 길을 열겠으며 훌륭하신 서하임춘 시인을 널리 알리는등 임춘 조고님의 문학세계와 선비정신을 재 조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은시인께서 친히 추서해 주신 서하임춘 추모의 마음을 담은 글을 바탕으로 서하임춘 묘비석도 금년도 세일제에 맞춰 정성껏 제작 설치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부안임씨 가족 여러분!!

씨족사회의 특징은 서로 끈질기게 뭉쳐 ‘우리는 하나’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 종회가 지향하는 방향성도 종원 모두가 하나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이어 가는 일입니다. 갇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상님들의 빛나는 업적과 정신을 소중히 유산으로 받은 우리이기에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로드맵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구한 가문의 역사를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면에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뒤처지지 않고 보다 더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훗날 따라 올 누군가가 있기에 정도로 길을 잘 내야 한다는 선구자 서산대사님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조상님을 모시고 그 정신과 얼을 이어 받아 후세에 연결시켜 가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실천 해 나가야 합니다.

제10대 종회가 절반의 변환점에 와 있습니다. 늘 종사를 생각하면 종원님들의 헌신 참여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습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씨 후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며 자랑스런 임씨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눈빛에서, 문학상 응모작품들을 읽어 보며 자랑스런 우리 임씨 종회가 가는 오늘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조상님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충효와 숭조정신을 살려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리 임문의 품격과 위상이 한층 높아져 명실공히 명문화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길이 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종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편달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김포종회 업무 및 활동 사항

〈서하 임춘 장학금 수여식〉



〈이사회〉



이사회 만찬

〈북건성 비간공 제향 참관 임한기 임정연〉



〈정기총회〉



〈하남성 비간공 유적답사 임용복 임성희〉



〈이사회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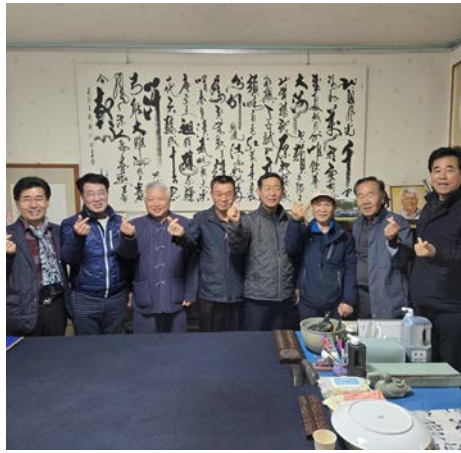


〈서구문화원 향토지 서하공 묘소관련 인터뷰〉



2025년 김포종회 업무 및 활동 사항

〈임원 워크샵 - 부안 임영하 서예실 내소사〉



〈자문회의 이사회 합동 복날 만찬〉



〈2025년 송년회〉



신임이사 임명장



2025년 송년회

〈임대식 카이스트(교수) 3.1 문화상 수상〉



상금 1억 상패 휘장전달 (대전 임문기님 장남)

〈전국임씨중앙회 감사 총회〉



전국임씨중앙회 감사보고 임종상감사



전국임씨중앙회 총회

제2회 서하임춘 공모 문학상

주최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주관 (사)한국문인협회 김포지부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회장 임종광)에서는 「제2회 서하임춘 문학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서하임춘은 고려 중엽 무렵의 천재문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소설인 「국순전」·「공방전」을 저술하시고 많은 문학작품을 후세에 남기신 훌륭한 문학인이십니다.

서하임춘 시인은? : "NAVER 참조"

응모기간
2026년 9월 1일~2026년 9월 30일(1개월간)

응모부문

구분	대상	공모부문	응모자격	응모주제
학생부	고교생·대학생	시·수필·가 2편, 단편소설 각1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시 거주자	"서하임춘 시인의 문학적 업적과 사상" 관련
일반부	일반시민			

시상내역

구분	일반부	학생부
대상	1명 200만원, 상패	1명 100만원, 상패
우수상	2명 100만원, 상패	2명 70만원, 상패
장려상	3명 70만원, 상패	3명 50만원, 상패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6년 9월 1일~2026년 9월 30일(30일 소인유)
 *접 수 처: (우)10110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2층(김포예총 내 김포문인협회)

응모유의사항
 *주제는 서하임춘 관련이며 시·수필 각 2편 중 1편은 필히 서하임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글파일로 작성 (12포인트 이내).
 *봉투 겉면에 '서하임춘 공모전' 표기 요
 *E-mail 접수도 가능: wangja8082@daum.net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하며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2년간 본 총회가 소유함.
 *응모작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표절 및 기 발표작일 경우 당선 취소 및 상패·상금 반환
 *당선자 발표는 개별 통지함. 시상식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수상작은 발간 예정입니다.

문의 | 서하임춘 문학상 운영 위원회 010-2233-0278

서하임춘 선생 묘역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59-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1회 서하문학상 시상식



심사위원



대상 박미림 - 누설하는 밤 외 서하 임춘론



우수상 장정희 - 낮잠을 자다가



우수상 홍봉호 - 古家(고가)



임종광 종회 회장



박윤규 김포시 문화원장



권영진 김포 문인협회 회장



임선기 종회 운영위원장



서혜원 학생부 대상 - 기지 외 1편



| 일반부 대상(시) |

누설하는 밤 외

박미림(김포시 운양동)

창호지에 아른거리는 바람이
호롱불을 당겼다 이내 평정을 되찾는 밤
먹을 갈고 붓을 든다

삼라만상 빗갈 품은 먹을 찍어
‘친구에게’* 보낼 시 한 편 쓰기 시작한다
먹과 붓 바람의 조화가
그림자 잃은 창호지에 길게 눕는다
바람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편지를 써 내려 간다

빛이 서서히 내려앉는다 새벽은
마른기침을 토렴한다
곧 웅알대는 아침이 밝아올 텐데
도망갈 곳 없는 이내 마음
달남에 매달려 세상 구경하고 오면
친구에게서는 답시(答詩) 와 있을까
오래 묵은 묵향만 홀연히 일어나

‘가을 달 봄바람은 시로 엮어내고’**

거기 저만치 홀로 비워가며
웅웅거리고 있구나
웃자란 달그림자가 내 곁을 비껴가는 밤

나의 소멸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사그라지고

서하 임춘論

땃마루에 걸터앉아 잊혀진 이력(履歷)을 떠올린다
서하집으로 국순전으로 공방전으로,
그 미묘한 활자의 세상으로 나를 갈아 넣었다

죽림고회(竹林高會) 벗들과
거꾸로 자라고 있는 고드름을 따 먹으며
시와 술이 세상의 빗물을 받아 마시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며
환절의 계절이 까맣게 타들어 갈 때까지
숨을 참으며 나의 문장에 밑불을 지피기도 했다

아주 천천히 더 단단하게 문장을 엮어
아무도 종을 울리지 못하도록
화선지(畵宣紙)에 점을 찍어 두었다

이로서 먼 훗날 기억될 것이다
선잠을 말갭게 행군 나의 문장을
후손들과 함께 또박또박 읽어 내려 갈 것이다

계절이 여전한 것을 보니
나의 생애에도 뒤늦게 꽃이 피나 보다
하긴, 너무 일찍 잠이 들곤 했었지
다시 정서(正書) 하는 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 서하 임춘!
참 스승의 소리다

| 학생부 대상(시) |

기지(機智, 耆之) 외

서혜원(김포외고 2학년)

어지러운 발자국을 초연하게 바라보자.
초성(草聖)에 새겨진 하루의 무게를
꽃꽂이 되걸어 보자.

앞꿈치로는 뒤꿈치를 되밟아 보고
뒤꿈치로는 앞꿈치를 되밟아 본다.

나아간 길에는 더 이상 되밟힘은 없다.
대신 굳은 땅의 두려움이 있고
새로운 풍경의 미숙함이 있다.

이들 덕택에 별판에 주저앉지 않아야 함을 되새김한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허무 아래서
더운 사랑의 입김으로
썩썩한 하늘을 개어 보자.

그럼 다시 굳은 땅엔 두려움이 있고
새로운 풍경의 미숙함이 있고
어지럽게 새겨진 안타까운 발자국들이 있다.

※기지(耆之): 서하 임춘의 자.

아픔까지 사랑한 당신

겹겹이 쌓인 나날과
어둡고 반투명한 그의 동공 뒤로
슬픔이 차올랐다
그가 봄을 꿈꾸지 않았겠는가

창밖에 내리는 빗물 같은 사랑,
앞사귀에 가려진 검은 눈동자의
머뭇거리던 마음도
스며들 듯 흐르고 있었다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하얀 실들은
웁아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거룩한 징표,
나의 복사뼈를 어스름이 스미는
영혼의 족쇄는
항해를 위한 뗏목 한 자루가 되었다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인 나날과
아무개의 울음 뒤로
향긋한 봄내음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림자가 드리워야
참다운 빛이 내리쬐는 것이고
사경을 독대하는 자만이
진실의 나를 마주 보며
함께 피어나는 난초의 정다움,
그것을 진정,
진정으로 이해할지니라

언제나 봄은 있다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서하 임춘 문학상 수상자 명단〉

구분	부문	성명	당선작품	시상내역
일반부	대상(시)	박미림	누설하는 밤	상패 및 상금 150만원
	우수상(단편소설)	홍봉호	古家(고가)	상패 및 상금 70만원
	우수상(시)	장정희	낮잠을 자다가	상패 및 상금 70만원
	장려상(시)	황은순	서사에 깃들다	상패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수필)	박선희	저는 부안 임씨 며느리입니다	상패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수필)	윤옥여	국순전	상패 및 상금 50만원
학생부	대상(시)	서혜원	耆之(기지)	상패 및 상금 70만원
	장려상(시)	김하준	그의 손길 따라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장려상(수필)	최혜윤	서하 임춘, 책속의 글 발같이 빛나다	상패 및 상금 30만원

*학생부 우수상은 선정 작품이 없습니다.

화보로 보는 2025년 종회 활동

〈서하공 세일제〉

음력 10월 15일 가현산 선영 세일제(묘제)
 부안임씨 7세조 서하 임춘조고님 묘소 세일제
 부안임씨 8세조 판민부사 휘 경세 조고님 세일제
 부안임씨 9세조 공해공 휘 숙 조고님 세일제
 부안임씨 10세조 밀직공 휘 대광 조고님 세일제



초헌관 종손 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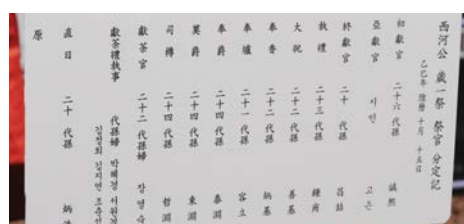
고은 시인 아현관



종헌관 창철 부안임씨중앙종친회장



헌다례 여성회 손부



집례 홀기 임종상



〈유존각 세일제〉

음력 10월 10일 임씨가묘 유존각 세일제
 11세조(十一世祖)중훈대부(中訓大夫)諱득성(得成)
 12세조(十二世祖)한림학사(翰林學士)諱계정(繼楨)
 13세조(十三世祖)어모장군(禦侮將軍)諱철손(哲孫)
 14세조(十四世祖)통훈대부(通訓大夫)諱원년(元年)
 15세조(十五世祖)諱사언(士彦)
 16세조(十六世祖)諱백춘(百春), 諱조춘(兆春)
 17세조(十七世祖)諱경남(慶南), 諱응남(應南), 諱두남(斗南)
 18세조(十八世祖)諱형원(亨遠)
 선조님의 위패(位牌)를 모신 유존각(唯尊閣)에서 세일제(歲一祭)



헌다례



산신제



화보로 보는 2025년 종회 활동

〈전서공파 독락제〉



전서공파 독락문화제 현대례



전서공파 목신제 천연기념물
임난수 은행나무 한쌍



전서공파 독락문화제



전국임씨중앙종친회 회관마련 헌금활동



전서공파 기호서사 완공

〈판사공파 춘향대제〉



판사공파 연천재 춘향대제
문헌공 휘 계미, 서하공 휘 춘, 판사공 휘 택



임종광회장 아헌례



〈전국임씨중앙회 대전 부리공원 효문화 축제〉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이사회 명단

직책	이름
회 장	임 종 광
수석 부회장 제례위원장	임 종 상
부 회 장	임 한 기
부 회 장	임 성 희
운영위원장	임 선 기
재무위원장	임 정 연
재산관리위원장	임 종 찬
홍보위원장	임 명 환
이 사	임 용 복
이 사	임 용 립
이 사	임 철 규
이 사	임 철 기
이 사	임 찬 기
이 사	임 하 기
이 사	임 덕 기

직책	이름
이 사	임 종 춘
이 사	임 응 기
이 사	임 종 수
이 사	임 철 연
이 사	임 경 기
이 사	임 광 기
이 사	임 성 연
이 사	임 태 연
이 사	임 동 연
이 사	장 영 숙
이 사	임 승 연
이 사	임 병 기
이 사	임 주 연
감 사	임 병 호
감 사	임 현 기

부안임씨 밀직공파김포종회 고문단

직책	이름
문 장	임 병 호
명예 회장	임 종 철
고 문	임 종 학
고 문	임 종 근
고 문	임 병 일
고 문	임 병 운
고 문	임 종 선
고 문	임 문 기
고 문	임 충 실
고 문	임 종 훈
고 문	임 종 철
고 문	임 용 혁

문화의 도시 인천을 꿈꾸다 (천재 문인을 통해)



총회 문장겸 상임감사 **임 병 호** 고려사 열전 15 이인으로 편에 보면 임춘을 “당세의 명유(名儒)”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명유가 되려면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스승이 될 수 있고 고금의 지적성곽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토록 두 사람의 우정은 서로가 평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사상과 문학을 존경 하였다. 이러한 높은 문장과 인품으로 죽림고회를 발족하여 발전시켰다. 임춘이 7년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개경에 돌아왔을 때 집과 토지는 군부의 병사들이 차지하여 송곳으로 쪼갬을 땅조차 없었고 병든 아내와 홀로된 여동생 뿐이었다. 그때 최문운이 찾아와 임춘 선생! 제가 선생의 시문을 흠모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장단의 우리 집 옆에 경치가 좋은 땅을 조금 나누어 드리려는 것이니 그곳에 초당을 지으시면 제가 시를 배우러 찾아가는 것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장단에 초당을 짓고 시와 편지 공방전을 집필하였다. 글을 많이 쓴 관계로 무리한 때문인지 건강이 다시 나빠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악화되어 숨을 거두셨다.

기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란 아내와 아이들이 슬피 우는 가운데 이인로를 비롯한 죽림고회 회원들과 시문을 사랑하는 많은 문인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를 하였다, 미수 이인로는 고향이 인천이었고 그 주위에 가현산자락을 추천하여 슬픔 속에 장례를 마쳤다. 이렇게 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묘소를 모시게 되었다.

장례가 끝난 후 기지의 아들이 흠어진 책상을 정리하던 중 상자에 지어놓은 시와 편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공방전의 원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수 이인로는 원고들을 모아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유고를 모아 서하문집을 발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20년후 미수는 아들 비에게 그동안 수집한 198편의 유고를 맡기고 책으로 발간하라 부탁하였다. 미수의 아들 비는 실권자인 최우를 만나 상의하였고 최우의 명령으로 1222년 마침내 “임서하집”이 발간된 것이다.

또한 200년 후 5대손 한림학사 휘 계정은 불사이군의 충직으로 조선에 합류 하지 않고 강남으로 낙향하여 서하공 묘소와 인접한 통진에 자리를 잡아 635년 간 대를 이어 살아오며 부안임씨 세거지로 발전된 것이다.

천재 시인 서하임춘 문학관 건립을 위한 초석 마련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최초의 가전체 소설 국순전과 공방전 등을 글을 남기신 천재 문인 서하 임춘 조고님을 숭조의 마음으로 선양하는 의미로 서하 임춘 문학관 건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하임춘 문학제와 문학상, 장학금, 검단 향토지를 발행하는 등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검단(김포)과 세종시 종중이 가현산에서 세일제 1세기 이상 시행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서하임춘 선영에서 세일제 시제 때 세종시 생활근거지인 임난수 조고의 전서공파 종중과 검단 김포 밀직공파 종인, 고흥 등 전국에서 서하공 세일제 시제에 구한말부터 참여 130여 년에 걸쳐 시제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서하 임춘의 증손자 임난수 후손이 세친한 세계 최대 집성촌

세종특별자치시는 문희공 임난수(서하임춘 증손자인 고려충신으로 조선 건국 후 불사이군)에게 세종대왕이 사패한 토지 중 세종시 면적의 52%(약 1,200만평)를 세종시로 편입해서 완성되었다

세종시는 충청,전라,경상 3도에서 발원한 물길이 남쪽에서 금강과 북쪽에서 미호강이 합류하는 금강 주변에는 오강팔정이 있는 독락정은 원수산을 주산으로 좌청룡 전월산 우백호 오산 안산으로 비학산 조산으로 계룡산이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서하임춘 증손자인 부안임씨 후손들이 세친한 곳이다. 세종시에는 650년 이상 지켜온 천연기념물 임난수 은행나무 암수 2그루가 세종시 국회의사당 세종부지 가까이 있다.



서하공 묘소



오른쪽이 주봉 김포 가현산 왼쪽이 서하임춘 조고님이 잠드신 사자봉 인천검단 남향 자락 가현산 사자봉(세자봉)



전서공 임창철회장, 임재한문화해설사 안내

임병호 문장 임창철 전서공회장



검단 도시 탐방단 인솔하여 세종시 탐방 세종문화원 안내

先祖 歲一祭 案内

忠節公	諱 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文憲公	諱 季美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西河公	諱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判民部事	諱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恭惠公	諱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判事公	諱 澤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密直公	諱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典書公	諱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兵馬節制事	諱 得忠	(음)	10월 13일	전남 고흥군
學士公	諱 繼禎	(음)	10월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